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 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3돐 경축 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손을 반갑게 일일이 잡아주시며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공지와 자랑을 안고 공화국창건일을 맞이하는 그들을 축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 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숨배여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역센 기상은 애국열의에 불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엄혹한 격난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뚫고 헤치며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올라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강인한 인민의 불요불굴의 투쟁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국위이고 국풍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국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근집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사랑의 환眸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혈연의 화폭이 펼쳐진 당중앙위원회트락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총성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념촬영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고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차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당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보로 귀중히 여기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지향과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온 나라에 혁명열, 애국열을 고조시키는데서 기수가 되고 열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더욱 키우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몸가깨이 불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대된 소년단원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가는 부모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여주신 뜨거운 육친

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참다운 애국자, 열혈충신으로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